

춤의 연대기  
춤의 연대기  
춤의 연대기  
춤의 연대기



©김중만

2022. 3. 30. 수. — 3. 31. 목. 7:30pm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춤의 연대기

2022. 3. 30. Wed — 3. 31. Thu. 19:30

국립  
중앙도서관  
서울

CHANGMUHWA (사)창무예술원

서울남산국악당

INSIGHT MOTI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 출연

김매자 한혜경 최은희  
이애현 최지연 김지영  
윤수미 손미정 김미선

## 음악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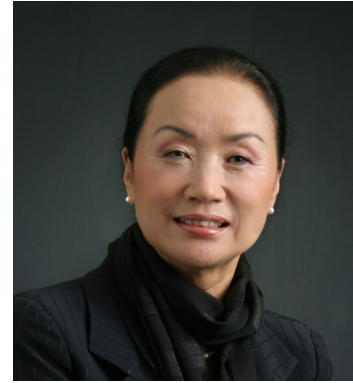
박우재

티켓 3만원

예매 인터파크티켓(1544-1555)

문의 02-2261-0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매자

## 인사말

돌이켜보면, 지난 1976년 창무회가 창단된 이래 저와 창무회는 한국의 전통춤으로부터 당대의 살아있는 춤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창무회는 이 땅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온 춤의 유산을 받아서 현재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헤아리고 가늠하여 동시대의 춤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공연하는 [춤본]을 위시한 일련의 창작 작업들도 창무회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춤본I]이 한국춤을 탐색하는 분석의 과정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면, [춤본II]는 한국춤의 신명과 자유로움, 내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춤본]을 통하여 한국춤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 이면서 근본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현대 한국춤의 방법론을 확립한 교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예술적 위상을 갖춘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는바, 이 장구한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이 저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춤의 본질을 추구하는 걸출한 무용가들이 창무회를 통해서 부단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그들은 현재도 한국무용계에서 어김없이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초심으로 제 걸을 지킨 그들과 함께 걸어왔던 [춤의 연대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 남산국악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춤의 연대기

“전통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발맞춰 재창조해 나가야만 전통이 오래도록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한국 무용가 김매자는 1980년대 후반에 발표한 「춤본 I」(1987)과 「춤본 II」(1989)을 통해 한국춤의 구조적인 모형화 및 정형화 작업을 추구하였다.

『춤본I』이 승무와 궁중무용, 작법 등의 춤 동작의 「외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작품이라면, 『춤본II』는 우리 춤의 즉흥성과 신명, 자유로움 등 「내적인 원리」를 유기적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춤본』은 창작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학술적 연구 논문들과 분석을 통하여 이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동시대 한국 춤의 근본을 체계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공연 기획은 『춤본』을 비단 김매자만의 작업이 아닌 한국 춤의 소중한 자산으로써 공유하고 객관화하여 동시대 한국 춤의 방법론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김매자가 『춤본』 전후에 창작한 작품들, 그리고 그동안 연구논문과 워크숍을 통하여 『춤본』을 연구하여 온 원로 및 중견 무용가들이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춤본』이 같이 공연될 예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공연은 『춤본』을 중심에 둔 ‘춤의 연대기’로 명명되었다.

이번 공연의 음악은 거문고를 통하여 한국음악의 동시대성을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창의적 음악 세계를 만들고 있는 박우재가 음악감독을 맡아 『춤본』을 새롭게 해석한다.



## 프로그램 소개



### 1. 춤본 I

출연 김매자, 한혜경, 최은희,  
이애현, 최지연, 김지영,  
윤수미, 손미정, 김미선

### 2. 살풀이 (한영숙제김매자류)

출연 한혜경

### 3. 숨 (김매자류 산조)

출연 김매자, 최은희, 이애현

### 4. 光 <Shining Light>

출연 최지연, 김지영, 윤수미,  
손미정, 김미선

### 5. 춤본 II

출연 김매자, 한혜경, 이애현,  
최지연, 김지영, 윤수미,  
손미정, 김미선

## 1.

### 춤본 I

1987년에 초연된 김매자의 『춤본I』은 춤의 외적인 틀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좁게는 안무가의 춤, 넓게는 세상의 춤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어지고 추어져야 될 것인지 그 춤의 밑바탕, 본디 생김새를 찾아 묻고 궁리하고 갈고닦는 학습과 수련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의 삶과 우주 운행의 길이 춤을 추는 인간의 몸체와 하나의 질서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의 전통 철학을 기본 전제로 우리 춤의 내용과 형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춤본I』 안에 내재하여 있는 궁중무용에서의 춘앵무, 작법에서의 나비춤, 민속춤에서의 승무를 한 무대에 올려 공존시키고, 춤 안에 스며들고 어우러지는 춤의 구조와 형태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어 마치 큰 새의 날개를 형상화하듯 군무가 이루어지고 『춤본I』의 대표적인 구성 틀을 형성하여 4괘의 방향성과 자전과 공전의 소 우주적 에너지의 장악력을 응축하여 전달한다.



2.

## 살풀이(한영숙제김매자류)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뿌리를 둔 김매자의 살풀이춤은 그만의 독특한 춤 맵시와 호흡을 춤 속에 녹여내어 잔잔함 속에 때론 가슴을 흔들 만큼 진한 감성을 토해내어 보는 이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3.

### 숨 (김매자류 산조)

긴 시간

자춧빛 응어리

내 핏속에 머문다

토 할 때



출연: 김매자, 최은희, 이애현

4.

## 光 <Shining Light>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새롭게 열린 신명의 세계에서  
희망을 품고 모두가 희열을 나누고자 만든 작품이다.

출연: 최지연, 김지영, 윤수미, 손미정, 김미선





## 춤본 II

[춤본II]는 1989년 초연된 김매자의 대표작이자 창무 춤의 바탕인 『춤본I』의 외적인 틀에 불교의식의 제의성, 민속춤의 자유분방함, 무속 춤의 주술성을 바탕으로 한국춤에 내재한 내적 충동 즉 '신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형식적 구조분석으로서 내용 전개에 따르면, 이는 민속적 장단의 어휘를 인식→쟁투→수용 →해결 →귀의의 현대적 의미의 맥락으로 풀어내고 있다.

[춤본III]는 김매자의 춤을 자서전처럼 풀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김매자는 자신의 춤의 길을 형상화하여 몸짓과 구성을 우주적 관점, 혹은 자연 속의 인간, 혹은 삶을 토로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무극 속의 무당처럼 삶 속에서 춤꾼으로서의 자신을 그려내고 있다. 삶이 무궁하고 춤꾼이 무당인 것이다. 때로는 신명으로, 무녀로, 여인으로...이렇게 다양한 인간적 모습으로의 무당성, 혹은 신명을 매우 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춤본II]는 예인으로서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는 춤 인생을 걷는 길에서 다가오는 고단함과 외로움, 흔들림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으로 창무의 춤과 숨, 그리고 몸에 녹아있다.





## 창무회 創舞會

---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한 동시대의 춤을 창작, 모색한다는 취지로 1976년 12월 김매자와 4명의 제자에 의해 창단된 최초의 창작 춤 동인 단체이다. 창무회는 동양사상의 예술적 구현과 한국적인 춤 언어의 개발을 모토로 예술적 실험과 표현영역의 확대를 통해, 한국 창작 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며 그 근간을 이루어 낸 단체이다.

창무회는 한국무용의 모든 분야 즉 무속, 불교 의식 무용, 민속춤과 궁중무용 등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동시대적 예술 형태로 발아시키기 위한 창작 작업에 주력해 왔다.

창무회는 지난 40여 년간 새로운 춤 어휘의 창조와 타 장르와의 공동 작업으로 한국무용계에 혁신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왔다.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창무회의 안무 방식은 우리 무용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 무용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 프로필



**김매자**

(사)창무예술원 이사장  
무용월간지[몸] 발행인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집행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역임  
북경무용대학교 명예교수



**한혜경**

(사) 한국심이체장고춤보존회 이사장  
(사)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사)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  
(사) 한국국악협회 이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춤 이수자



**최은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역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울산시립무용단 창단 안무자 역임  
(사) 대한무용협회 부산지회 고문  
(사) 우봉 이매방보존회 이사  
(사) 민족 미학연구소 감사  
(사) 봉생 문화회 이사  
제5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수상(2013)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김지영**

창무회 부예술감독  
무용월간지 [몸] 편집위원  
창무국제공연예술제 프로그래머  
한국체육대학교 산업협력단 전임연구원  
늘춤아카데미 대표  
(사) 한국춤협회 부이사장  
서울교방 동인



**손미정**

예원학교 전임교사  
崔賢우리춤院 이사  
(사) 대한무용협회 이사  
(사) 한국춤협회 이사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이사  
미지에 댄스컴퍼니 대표



**김미선**

창무회 상임안무가  
동덕여자대학교 무용과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강사  
(사) 한국춤협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이사



**이애현**

경북도립무용단 상임안무가 역임  
남서울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문화재전문위원 역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사) 한국춤협회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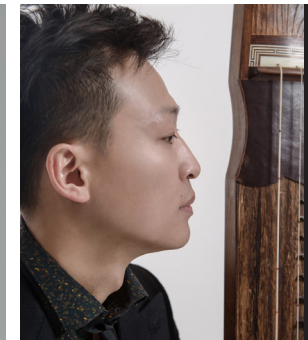
**최지연**

창무회 예술감독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최지연 무브먼트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와 강사  
(사) 한국춤협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이사



**윤수미**

동덕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사) 한국춤협회 이사장  
세계무용연맹 한국지부 부회장  
윤수미무용단 예술감독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운영위원  
서울 국제안무페스티벌 인 탱크 자문위원



**박우재(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기악전공 거문고  
2002년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수상 (국립국악원, 한국일보 주최)  
현재 무토(MUTO) 멤버, 바람꽃현악부 멤버  
작품: 국립극장 2021 여우락페스티벌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국립무용단 <제의> - 작곡, <두 개의 눈> - 예술감독  
Carlos Acosta 의 Mermaid - 작곡 (안무:Sidi Larbi Cherkaoui)  
영화 <벗어날 탈> - 작곡/연주  
앨범: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이상변이>  
바람꽃 현악부 <계면활성>,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꽃 <바람꽃>

©Chad park

크레딧

창무예술원  
무대감독  
박진형

무대크루  
강호준 강대성 이지경 김은영

조명디자이너  
김철희

조명프로그래머  
석보미

조명크루  
노상민 이진우 맹우영

음악감독  
박우재

연출  
이광성

사무국장  
김운태

기획, 행정  
박진형 이은빈

사진  
서원영

분장  
강윤자

의상 디자이너  
민천홍 신근철(신 의상실)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최민호

기획홍보팀  
이유정 이아람 박예은 유예진

무대기술팀  
김성수(팀장) 노익환 배경기 박영규

운영지원팀  
정장미(팀장) 이선하 송창선 이보라

-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 대표  
김지욱

-

주최/주관  
창무예술원  
서울남산국악당  
서울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kakdang